

DDA 타결 임박... 한국 농업 어떻게 되나

수입 문턱 낮아져 저가 농산물 '붓물'

쌀 제외 수입관세 3분의 1로 조정 불가피... 개별 협상 개도국 지위 관철 관건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농업 부문의 경우 세부원칙 '잠정 타협안'대로라면, 현행 농산물 수입 관세를 평균 3분의 1 정도 낮추어주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전반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쌀의 경우,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와 2004년 쌀 수출국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DDA 협상 결과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7대 무역국 회의에서 DDA(도하개발어젠다) 무역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 수석대표인 김종훈 외교 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이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DDA=우루과이협상(UR)에 이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2001년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구체화돼 '도하개발어젠다'로 불린다.

'특별품목'은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식량안보·생계·농촌개발 등의 차원에서 일괄 관세 감축 대상에서 제외,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내리지 않을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민감품목'은 관세를 덜 줄이는 대신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을 늘려야 하는 품목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주장할 수 있다.

민감품목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 세번수의 4%, 5.3% 범위에서 인정하고, 합의된 일괄 감축률과 실제 감축률의 차이에 비례해 '보상' 차원에서 TRQ를 부여키로 했다. 현행 세번 수 기준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민감품목 수는 선진국 기준(4%) 약 58개, 개도국 기준(5.3%) 약 77개다.

◇각 회원국과 개별협상-개도국 지위 관철이 관건= 만약 이번주 DDA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잠정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 등 각국은 이 세부원칙에 맞춰 '이행계획서'를 만들고 회원국 전체에 제출한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관세 감축 쪽 등에서 크게 유리한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만약 일부 회원국이 우리의 이행계획서에 대해 '어떻게 한국이 개도국이다' 등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개별 협상을 벌여 품목별 감축률이나 TRQ 등을 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현행 270% 관세율 144%로 낮추어=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WTO 주요국은 농업 분야 세부원칙(modalities)의 핵심 쟁점과 관련,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기준으로 관세 감축률은 ▲양허관세 30% 이하 ▲30% 초과 80% 이하 ▲80% 초과 130% 이하 ▲130% 초과 품목에 대해 각각 33.3%, 38.0%, 42.7%, 46.7%로 결정됐다.

선진국에는 개도국보다 낮은 구간 기준과 1.5배 정도 높은 감축률이 적용된다. 특별·민감품목 등 이 구간별 일괄 감축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아직 정확한 평균 감축률 산정은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도 대략 농산물 관세가 현행 대비 평균 3분의 1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174개 '특별품목' 관세 평균 감축률 11%=농산물 수입국 그룹(G10)과 개도국 그룹(G33)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주장했던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이 무난한 범위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하면 관세 인하에 따른 국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협상 타결 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 미치나

자동차·조선·전자제품 수출 활기

FTA 위주 통상전략 재검토 필요

2001년 11월 출범 후 7년을 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이달 중순 각료회의 개막 전만 하더라도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농업협상과 비농업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26일(현지시간) 잠정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잠정 타협안에 대해 인도 등 일부 주요 교역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설사 농업과 NAMA에서의 잠정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여타 쟁점들이 남아있어 WTO가 당초 제시했던 '연내 완전 타결'까지는 아직 남아있을 산이 많다.

이번에 나온 잠정 합의안은 관세감축의 품목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결과물이 아니라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해득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산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민감분야인 농업협상의 경우 타결의 기초적인 자유화 세부원칙(Modaluty)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한도에서 각각 70%, 80%씩을 삭감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의 일원으로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수세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잠정 타협안에 따른 경우 특별품목(SP, 일반품목)과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는 품

목으로 174개, 관세감축 면제 품목으로 73개를 확보하게 됐다.

DDA가 이번 잠정 타협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나머지 쟁점분야 협상을 타결시키고 정식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FTA 일반도 통상전략 대신, DDA 체계와 FTA를 조화시키는 전략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농산물 분야에서 수세적인 입장과 달리, DDA 비농산물(NAMA) 분야의 핵심인 자동차 조선 등공산품에서 우리나라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이번 잠정 타협안에는 이런 요구들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우선 공산품 관세에서 상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감축계수를 개도국의 경우 일부 품목의 관세 감축을 면제하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대신, 20~25%선으로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개도국 시장 진출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정부 ARF 미숙 대응... 외교력 논란 재점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선명을 '금강산 피살 사건'과 '10·4 정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담겼다 하 루가 지나 두 부분이 모두 삭제된 것과 관련,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온도차는 있지만, 아를 불분하고 한국 외교력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의 미숙한 대응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유명한 외교장관의 거취까지 거론하고 있다.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24일 회담을 마친 뒤 오후 9시(한국시간)에 '금강산 피살 사건'과 '10·4정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담긴 의장선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5일 오후 '금강산 피살 사건'과 '10·4정선언'과 관련된 부분이 모두 삭제된 수정안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삭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사후라도 정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보수·진보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인도적 문제인 '금강산 피살 사건'을 '10·4선언'과 산술적으로 균형을 맞춰 삭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일로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강한 거부감을 확인했으니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8월1일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최소비용!으로 최고명강(最高名講)을!

토마토TOEIC 해커스TOEIC 맨투맨 영어 수강증 1개로 외국어 영어회화 TOEIC Speaking 중국어 일본어 2개 강좌 동시수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변함없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www.donga.tv

T. 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 귀하의 직업!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안정된 公務員을 선택하십시오!! =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 강좌직종: 행정부처원, 경찰, 교보, 보복군, 토건, 전

금년 중·하반기 시험

합격수강 회원모집

개강 8월1일(주·아반 모집)

◎ 6개월(총)회원 80만원

◎ 1년(총)회원 120만원

◎ 합격시 까지 170만원

=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평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부근) 222-4560

월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상담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 가입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7)에 의해 고용사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의 80% 환급
▶ 시 령 :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시험 10월 26일

7월 ? 문제풀이특강

9월 ? 종정리 및 실전문제특강

국비무료

8월 핵심이론 + 단원별 문제이해

10월 동형 모의고사 + 일일 단기특강

고용보험 환급과정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위 ● 선배중개사분들이 추천한 '등학원' ● 인문과 신뢰를 주는 학원! 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특강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학장이전, 오정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